

보도 일시	배포 후 즉시 사용	배포 일시	2022. 11. 21.(월)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총리비서실 언론지원과	책임자	과 장 박용주 (02-2100-2183)
		담당자	사무관 유상명 (02-2100-2186)

「윤 대통령 출근길 약식회견장에 가림막 설치 관련 보도(11.20., MBC뉴스)」中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

1. 주요 보도내용

- MBC는 윤 대통령 출근길 약식회견장에 가림막을 설치한 사실을 보도하면서,
 - 태국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최측이 기자들에게 나가라고 안내하는 순간 미국 기자들이 큰 소리로 질문을 퍼붓는 모습을 보고,
 - “미국은 늘상 그런지 해리스 부통령은 전혀 안 놀라더라, 답할 리 없는데도 질문하는 미국 기자들의 열정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.”라고 발언했다고 전했습니다.

2. 설명내용

- MBC에서 보도한 한 총리의 발언은 APEC 회의 도중 이뤄진 북한 미사일 관련 6자 회담의 긴박한 분위기를 설명한 것으로 △국내상황과 전혀 무관하며 △발언 인용도 부정확합니다.
 - 한 총리는 6자회담 다음날인 11월 19일(토)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6자회담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비보도를 전제로 “미국 기자들이 한꺼번에 소리 지르듯이 질문을 했고, 질문내용도 알 수 없을 만큼 고성이라 깜짝 놀랐다”는 취지로 말했습니다. 발언 취지와 맥락상 단순히 현장분위기를 전한 것으로, 미국 취재 관행을 칭찬하거나, 우리 언론 관행이나 정치상황에 빗댄 말이 아니었습니다.
 - MBC의 해당 보도는 또한 동행취재기자단 스스로 정한 엠바고 합의(11월 21일 오전 6시)와 오프 더 레코드 관행도 위반한 것입니다.